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 경제의 성장과 불안요인

- 중국증시 시가총액 규모가 최근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 반면 대지진의 영향으로 그 동안 세계 2위를 기록했던 일본증시는 3위로 밀려남.
 - 2004년 중국증시는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한 반면 일본증시는 세계증시의 12%를 점유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으나 2005년부터 중국증시의 급성장세가 나타나면서 6년 동안 시가총액이 5배가 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.
 - 중국증시의 일본증시 추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폭락으로 주춤했으나 이번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중국증시가 7.38%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함.

-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(GDP)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%에 육박했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 전망됨.
 -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은 5조 8천 791억 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의 9.5%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5년 5%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전 세계 순위로는 미국 다음인 2위임.
 - 2005년 이후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~2009년을 제외하고 모두 10%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음.

- 중국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최근 일본 대지진, 리비아 사태 등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고심하고 있음.
 -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정책위원회를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으나 통화정책의 적합성, 유연성, 유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하여 긴축 통화정책의 완화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음.
 - 이는 일본 대지진, 리비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긴축 일변도의 통화정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임.
(중국 주식시장 시가 일본초과 세계 2위, 신화망, 3/25)